

3월26일(월)/벤전3:7

제목: 아내를 사랑해야 일이 잘 풀립니다.

베드로는 남자의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우선 남자는 지식을 가지고 결혼해야 한다(7절). 여기서 지식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남자는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난 후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약한 존재로 알고 늘 조심스러워해야 한다(7절). 아내는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같다. 그러므로 아내의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아내의 신체를 잘 보살펴야 한다. 아내에게 정중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여겨야 한다(7절).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나 영생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남편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의 기도는 막히게 되어있다(7절). 남편이 아내에 무심하거나 포악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말이다. 부부가 화목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복을 받으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려면 아내를 이해하고, 정중히 대하고, 잘 살피야 한다.

3월27일(화)/벤전3:8~12

제목: 기독교의 본질은 긍휼.

베드로는 모두 한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했다(8~9절). 크리스천은 그것을 위해 부름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했다(9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동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12절).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가름 난다. 기독교의 본질은 긍휼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사건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할 만큼 강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영성이 있는가? 누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누가 돈이 없어 자식을 학교 대신 공장에 취직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기독교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3월28일(수)/벤전3:13~22(1)

제목: 화내며 전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나 협박을 받을 때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며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13~16절). 그렇게 하면 협박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16절). 베드로는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고 하였다(17절).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즐겁게 받으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단 번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18절). 예수님은 죽으실 때 화를 내지 않으셨다. 어쩌면 너무나 공손한 태도로 악인들의 모든 명령을 따르셨다. 기독교에 대한 변호는 이처럼 공손해야 한다. 건방진 태도와 호전적인 자세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마치 그가 곧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으로 화를 내며 몰아 세워서는 안된다.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그를 지도해야 한다. 처음부터 막부개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현명한 아량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위협하듯이 다루면 그는 점점 더 신앙과 멀어진다.

3월29일(목)/벤전3:13~22(2)

제목: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계시는 동안 그의 영은 불순종하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셨다(19절). 여기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어서 세례를 설명하였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비웃으며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다 죽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뿐이었다(20절). 이것은 오늘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베드로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20절)라는 표현을 썼다. 정확한 뜻은 ‘물에서’ 구원받은 자이다. 이것이 세례의 예표이다. 노아의 가족은 옛 세계가 그 죄값으로 물에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반대로 그 ‘물에서’ 구원받았다. 세례가 무엇인가? 옛 사람은 물속에 매장되어 없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오직 새사람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의 소극적인 면이다. 세례는 소극적으로 죄악된 요소를 씻어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부터 얼마나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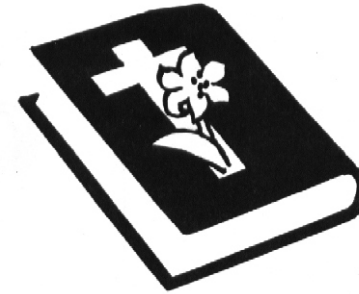
3월30일(금)/벧전4:1~6

제목: 세례받은 자의 삶

베드로는 예수님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며,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라고 하였다(1절).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지금 막 세례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세례는 옛 것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죄와 정욕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2절). 세례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세례받은 자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이니 더 이상 죄와 연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례받은 자는 이미 부활을 맞본 자이므로 죄에 대해서 승리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흥청만청과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는 관계가 없어졌다(3절). 세례받은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며 살았던 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보다 몇천배의 즐거움을 보상받는 것은 안다(5절).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죄짐은 가볍게 이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